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재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2년도 기도제목

- 1) 불가능이 없는 믿음 (마가복음 9:23)
- 2) 거룩한 자녀 (데살로니가전서 4:3, 디모데전서 4:5)
- 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마태복음 21:12~13)
- 4) 재창조의 권능 100% (에스겔 37:4~10)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남)	이수진(당회장 직무대행) 안성현 조대희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식(3) 장성식 정현진 이풍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노영진	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영호, 김중훈 폴 무사파리 날완고(협력), 자코 네마 시카텐다(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쯔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정연, 온두라스 에스테인 할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송, 마크 바질레르 캐 나 다: 이성일 영 국: 제인 음플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비탈리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판: 조찬형, 성 수,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삼휘 몽 골: 발저릭 푸레브, 양호바야르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지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윌슨 존 길, 타리크 지야 중 동: 보나 시뚜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에스토니아: 그리고리 콜레스트
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	
협동 목사/	문신현 황금란	
전 도 사/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황미선 조은영 강순길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최시은 김진주	원로 장로/ 이정호 장 로/ 반성건 이동림 최종태 이주월 추오동 이시헌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오세영 박영준 정안권 박노철 김왕기 박현재 박경춘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홍만 김규식 송왕근 김진홍 송석길 이강준 장영규 이익석 임영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효용 윤성식 김기호 박흥열 박영갑 김봉완 홍명일 김준호 이강복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태봉 채윤석 김석환 진교성 황병현 박성준 최병술 이덕행 최희수 허은범 정태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정성규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용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열 손영락 윤부열 박종웅 송영현 이성익 정영호 정용필
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	
기도원 교역자/	김영식	
지교회 교역자/	문태규 정철수 이행업 박흥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제수 서진범 김창숙 박중대 황병덕 오환준 김혜경 차전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정오 김상휘	명예 장로/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종 최신일 한병용 나중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명옥 배철효 김영남 서상기 문경진 박진무
		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재
		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중웅 나 사 렛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흰 들 성가대: 서승현 넋시오케스트라: 김한구
		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27장 1절	다 같 이
* 성시교독 52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411장	다 같 이
기 도	최영자 목사
성경봉독 마가복음 2:3~12	사 회 자
찬 양 내게로 와서 쉬어라/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일어나 뛰고 걸으며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159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설 교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설 교 자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임학영 목사

대표기도	조혁희 목사
성경봉독	마가복음 9:23, 히브리서 11:6/ 사회자
찬양	영광의 주의 이름/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청주만민교회 여선교회
설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 세바스찬 임페토 장로(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만민하계수련회 관계로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박재영 목사

대표기도	장성식 목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11:1~13/ 사회자
찬양	임마누엘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45)/ 당회장님

2-9회 4차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남 원장

기간/ 8월 1일(월) ~ 8월 21일(주일)

주제/ 변화와 생명, 성전이전

새벽 예배

※ 추후 공지 시까지 새벽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조혁희 목사	이성숙 목사
주일 저녁예배	임학영 목사	김진홍 장로
수요 예배	정규원 목사	임금선 전도사
금요 철야예배	김상휘 목사	안성현 목사

강단헌화
갤러리



제 목 : 만민의 역사
 본 문 : 민 23:19

교회 개척 4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 역사를 회고해 봄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 섬세하게 이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 1980년대

우리 교회는 1982년 7월 25일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1980년대는 개척 전후로 교회의 기반을 닦는 시기였습니다.

개척 전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 기초를 쌓았습니다. 개척 멤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했고 저는 교회를 이끌 목자로서 금식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지요. 개척한 후에도 기도의 불이 켜짐 없이 타올랐습니다. 일꾼들이 하루 5~6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그 가운데 강대상, 마이크, 커튼, 피아노 등 필요한 성물이 하나, 둘 채워졌습니다.

교세도 짧은 기간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해 열세 명이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77일 후 창립 예배에는 열 평 남짓한 성전에서 100명이 넘는 성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성도가 늘어나 만 5년이 채 안 돼서 등록 교인이 3,000명을 넘어섰지요. 성전을 건축할 틈도 없이 성전이 가득 찼고, 그때마다 극적으로 성전을 넓혀 이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개척 전부터 끊임없이 환자들과 갖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권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찾아왔습니다.

들것에 실려 왔던 이들이 걸어서 나갔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암, 백혈병, 뇌종양, 연탄가스 중독, 중증 폐결핵, 백혈병, 3도 화상 등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귀신이 나갔고, 잉태하지 못한 이들이 기도 받고 잉태했으며, 심지어 호흡이 끊긴 사람도 살아났지요.

이처럼 권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의 양 떼가 되고 일꾼이 되었습니다. 남녀선교회, 청년선교회 등 각 선교회와 기도 제물, 봉사대, 성가대, 예능팀 등 각종 조직, 기도원, 선교원 등의 부설 기관의 초석이 되었지요.

1980년대에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영적 기반이 되는 성경 말씀을 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 천국, 요한계시록, 율기, 영혼육, 성경 곳곳의 난해 구절 등 신앙생활의 기초 말씀부터 깊이 있는 말씀까지 성경 말씀을 풀어 주셨지요. 이는 7년간 쌓은 무수한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 주옥같은 말씀들이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무수한 영혼을 깨우고 있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뜻대가 되는 비전들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만민’이라는 이름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담아 주셨습니다. 둘째로 대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셨지요. 열 평 남짓한 성전 안에서 17명의 성도에게 환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대성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영적인 말씀, 기사와 표적이 넘치자 전국 곳곳에서 저를 부흥성회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라디오 기독 채널을 통해 전국에 간증과 설교가 방송되었지요. 사실 제가 주의 종이 되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7년간의 병고에서 건져 주시고 영생을 주심에 감사하여 훌륭한 장로가 되어 영광 돌리고자 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지요.

본 교회는 이처럼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세상 권세자나 재력가, 지혜자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의 모든 기반이 닦였지요.

2. 1990년대

1990년대는 교회가 영육 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축복의 연단이 이 새로운 시기를 알렸지요. 원수 마귀는 본 교회가 계속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990년 어느 날, 당시 속해 있던 교단의 총회원들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고 저에게 ‘목사 파직’을 선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부당한 일을 목도한 목사님들은 안타까워하며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크게 성장하니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선배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예’ 하고 한마디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불의와 타협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여파로 저는 그 무게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짐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교회는 이 사건의 주동자를 용서했습니다.

오직 선으로 시험을 통과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중생, 성결, 신유, 부활, 재림의 오중 복음을 토대로 새로운 교단을 창설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차원이 아닌 교단 차원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역사하셨지요.

국내 교계 행사와 정계 행사 곳곳에 초청받아 순서를 담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회 봉사대원들과 안내위원들, 성가대와 닥시오케스트라 등 일꾼들이 함께 봉사해 주셨습니다.

얼마 후에는 본 교회가 미국 ‘크리스천 월드’ 지에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해외에까지 알려져 미국의 LA, 워싱턴, 볼티모어, 하와이, 일본,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 초청받아 성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만민선교센터가 세워지는 등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지요.

또한 1990년대에만 두 번의 성전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2주 연속 특별부흥

성회를 개최하면서는 수많은 환자가 치료받아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한 주에 새 교우가 400~500명 이상 등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1980년대와는 차원이 다른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양적인 성장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알곡이 되는 것이었지요. 지금까지 저에게 기도 받고 치료받은 분 중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많지만, 교회를 떠난 이들도 많습니다. 당장의 갈급함 속에 하나님을 찾았을 뿐, 참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지요. 또 교회에 출석하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이나 다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990년대 말, 알곡과 쪽정이를 가르고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세 번의 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차례 시험을 거치면서 저에게는 이전보다 더 큰 권능을 주셨지요.

1, 2차 시험이 있던 1998년에는 6주 동안 환자 집회를 열도록 주관하셨는데 변함없이 놀라운 역사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뇌성마비 환자와 1급 지체 장애 환자의 몸이 풀어지고, 암 환자의 암 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역사를 끝없이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본 제단에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보장받고 있는지 산 증거를 눈앞에 보여 주셨지요. 그런데도 1999년 모 방송의 거짓 보도로 인해 또 많은 성도가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시험을 통해 각 사람의 마음에 진실한 믿음과 참 선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제단답게 육적인 성장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보며 심히 애통했지만, 저와 성도들은 악을 악으로 대항치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오직 선으로 대항했지요. 이처럼 선으로 시험을 통과한 결과 맺힌 열매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3. 2000년대

세 차례 시험을 통과함으로 맺힌 열매들은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3차까지 큰 시험이 끝난 그 이듬해 곧 2000년, 무안의 바닷물이 단물로 바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간다 성회를 시작으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세계를 무대로 펼쳐졌습니다. 세 차례의 큰 시험은 본 제단이 해외 선교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저와 성도들은 진액을 다해 성결의 복음과 권능으로 세계를 일궈 나갔습니다.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등지에서 대형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마다 수만,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의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이 증거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수많은 영혼이 치료받았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어둠이

물러갔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지요. 우상이 깨어지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마침내 땅끝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3년간 이스라엘 땅을 직접 밟으며 사역한 결과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극 정통 유대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대에는 방송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004년 5월에는 만민 TV를 중심으로 세계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인 GCN이 결성되었고, 뉴욕 공중파 채널 17번을 통해 첫 방송이 송출되었지요. 송출되는 그 시간대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는 빛으로 십자가가 선명히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 기독교 의사 네트워크 WCDN과 만민 국제신학교 MIS가 조직되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더불어 방송 전파와 여러 언어로 번역된 책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못한 곳까지 구석구석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권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영의 공간을 열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지구상의 무수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자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로 이끌고 계시지요. 개척 당시에 본 교회에 주신 비전, 곧 세계 선교의 비전과 대성전 건축의 비전을 눈앞에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쁜 일도, 애통할 만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연단 속에 있을 때나 축복받을 때나 기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섭리 가운데 이 제단을 세우시던 때의 기쁨을 절대 잃지 않으셨지요.

저와 본 제단이 연단 속에 있다고 해도 오히려 더 큰 권능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결국 성도들이 변화되어 알곡으로 나와 이 마지막 때 이 제단에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룰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섬세하고 자상하게 만민중앙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한 대로 앞으로도 만민을 인도하시며 모든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 또한 아름답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개척 때부터 주신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차 모든 섭리를 이루시고 만민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귀한 상으로 갚아 주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함께하시고 앞으로는 늘 우리와 함께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모두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 속에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 :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본 문 : 히브리서 11:1~3, 욥기 8:7

오늘은 우리 교회 개척 40주년을 맞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던 40년 전의 시간을 돌아보겠습니다.

만민 제단이 나아온 4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1982년 7월 25일 이 제단이 처음 개척예배를 드릴 때도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 오셨지요.

이 제단이 ‘믿음으로 달려왔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시험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개함 없는 행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수고하신 분도 목자님이시며, 보이는 것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 마지막 때 세계를 이루는 제단이 되게 하신 분도 목자님이시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온 만민의 역사는 목자의 믿음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신 목자

당회장님은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셨습니다. 병원이나 한방, 민간요법, 주술 등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고 한 줄기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당회장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질병을 단번에 치료해 주셨으니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회장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각종 예배, 구역예배나 가정 심방예배를 사모함은 물론 부흥성회가 열린다는 광고만 보아도 즐거워하며 힘써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셨지요.

또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음을 아시고는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소리를 내어 정독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죄악을 발견하면 그것을 버리기 위해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고, 쉽게 버려지지 않는 죄성은 노트에 기록하여 버릴 때까지 계속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십일조는 물론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신 말씀을 믿었기에 건축헌금, 각종 예물을 힘에 넘치도록 하시되 즐겨 드리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신 말씀대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며 섬기기를 즐겨하셨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롬 13:8) 하신 대로 어려움 중에도 절대 빛지지 않도록 가르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2.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종의 길을 가신 목사

이렇게 힘써 죄를 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한 가지 꿈을 품으셨습니다. 부요한 장로가 되어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을 힘써 구제하며 전도하기를 바라셨지요.

그런데 1978년 5월,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당회장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지요.

현실은 너무도 막막했습니다. 학창시절 오랫동안 수면제를 복용하여 기억력을 잃은 데다, 7년 동안 병상에 누워 쌓인 많은 빚은 부부가 함께 힘써 일해도 겨우 이자만 갚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회장님의 성품은 내성적이셨고 나이도 많은 등 여러 가지 염려와 어려움이 현실에 가득하였습니다. 당회장님은 이런 상황 속에 더 열심히 기도하셨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당회장님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셨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개척을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도울 사람을 찾거나 개척할 좋은 장소를 물색한 것이 아닙니다. 개척자금을 만들기 위해 육의 방법을 동원하지도 않으셨지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금식으로 쌓으실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권능이 아니고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참 믿음을 심어줄 수 없기에 권능을 구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풀어 받기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깊은 영의 세계를 알아야 성도들을 참 진리로 이끌 수 있기에 이를 위해 금식하며 매달리셨지요.

집사 때도 성결을 이루기 위해 금식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권능 받기를 준비하면서는 3일, 7일, 15일, 21일 금식을 셀 수 없이 하셨습니다. 개척하기 전 1981년, 신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는 하나님께서 40일 금식을 주관하셨고 당회장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 6일째부터 붙들어 주지 않으셨기에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금식이었습니다.

이때도 당회장님은 조금도 번개치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인내로 금식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데도 목자님의 인내와 능력으로 40일 금식을 마쳤기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주관 받으시는 대로 기도, 금식 등 순종해 나가니 개척 전에도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고 기도받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3.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개척자금

목자님의 놀라운 권능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고와 눈물, 연단의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행군하셨기에 이를 수 있는 권능이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불평이나 원망, 서운함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셨지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뜻대로 순종하되 어려움이 와도 조금도 변함없는 사랑과 순종이 목자님의 믿음이셨습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과 기도로 개척을 준비하시던 중 1982년 5월,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작열할 때 개척하게 되리라”고 교회 개척 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앞둔 그 당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주의 종으로 부름 받으시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는 운영하던 가게가 잘되도록 축복해 주셨고 그 많던 빛도 갠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개척하는 그 해 3월부터는 가게에 손님이 툭 끊겼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 가게를 정리하고 개척을 할 때는 단돈 7천 원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하나님께서도 형통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당회장님을 통해 치료받으신 권사님 한 분의 마음을 주관하시니 삼백만 원을 개척자금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개척지인 신대방동에 성전건물을 얻고자 했을 때 예비된 곳이 정확히 보증금 삼백만 원이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군할 때 가장 합당하고 정확히 역사하셨습니다.

4.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개척하니

교회 개척을 준비하던 1982년은 당회장님께서 신학교 4학년 때이셨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개척을 준비하며 신학생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계셨지요.

그러던 중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척을 위한 기도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니 소문이 나서 여러 명의 신학생들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석했던 학생 중 한 명이 당회장님을 거짓으로 모함하여 신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때 당회장님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한 대로 7월 25일 개척예배를 드렸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유리창도 달려 있지 않은 성전에 마이크 등 기물도 구비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서 어른 9명, 어린이 4명, 총 13명의 성도로 개척예배를 드렸지요. 말 그대로 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도 교회 개척을 준비하며 함께 도와주고 출석할 형제, 친척들을 생각해 보셨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 40명은 되겠구나 하셨지요. 하지만 막상 개척을 하니 이런저런 이유로 일가친척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다시 깨달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람의

방법이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짓 모함으로 벌어진 퇴학위기는 당회장님께서 해명하거나 문제를 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해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5.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게 이루신 하나님

개척예배에는 신학교 동기나 교수님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개척 후 두 달 뒤에 있었던 10월 10일 창립예배에는 교수님들과 축하객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또 개척 때는 재정이 없어 성전의 기물도 채우지 못하고 시작하였지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마이크, 강대상, 피아노, 전화기, 선풍기, 십자가 종탑 등 성전에 필요한 기물을 두 달 동안 모두 채울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권능이 크게 나타나니 외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헌물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교회이지만 생명의 말씀이 있고 어디서 보지 못한 크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니 진리를 사모하는 선한 일꾼들이 등록하였고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고자 모여 들었습니다.

그렇게 개척 후 두 달여 시간에 크게 부흥하여 백여 명의 성도로 창립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목자님은 오직 믿음으로 행군하여 아니 될 것 되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이지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짧은 시간에 창대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님의 믿음이십니다. 어떤 연단이나 괴로움이 와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않으며 더 힘써 기도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신 목자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날마다 권능으로 입히시어 부흥과 물질의 축복, 사랑과 높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목자님께서 어떤 믿음으로 개척을 이루셨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개척을 준비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태양이 작열한 1982년 7월 25일 무에서 개척한 만민은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아무도 돕는 이가 없고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없던 교회 개척의 때, 오직 믿음으로 창대히 이루신 목자님의 사역을 생각하며 더 힘차게 믿음의 행군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순종으로, 사랑으로 함께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더 큰 믿음의 성장, 온전한 믿음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읽을 말씀 / 마태복음 7:7~11

외울 말씀 / 마태복음 7:11

참고 말씀 / 요한삼서 1:4

교육 내용 /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야 하는지 깨닫게 한다.

부모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무엇을 구할 때 당연히 그것을 들어주고자 합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1.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한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주님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믿음 곧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3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1시간, 2시간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술, 담배를 끊으려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단번에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세상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지’, ‘왜 말씀이 하나님이신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혼 구원 곧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성결하기를 기도하라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진리대로 행하며 성결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합니다(요삼 1:2).

셋째로, 일꾼이 되기 위해, 사명 감당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뒤에는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일꾼 된 사람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간구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일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여 더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 더 큰 사명이 주어지고 많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영화로우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것 등 육적인 것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식주, 일터, 사업터, 건강 등 육적인 분야도 하나님께 응답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넉넉히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 잘 아시니까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약 4:3) 말씀한 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지어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찾으라고 당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음 받은 생명(살아 있는 영)이었습니다. 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에덴동산에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결국 죽게 되었지요. 여기서 죽음이란 단순히 호흡이 끊어지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뜻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과 영의 지배를 받는 혼, 그리고 영과 혼의 장막인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살전 5:23).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고 말았지요. 아담의 영이 죽지 않았을 때는 생령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했는데, 영이 죽자 더 이상 교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원수 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대로 정욕적이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짐승과 다름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전 3:18).

이처럼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지요.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고 어둠의 일들을 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로써 성령으로 영을 낚으며 진리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곧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3.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진도자나 여러 방법을 통해 또는 천하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느끼게 해 주심으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셨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문을 두드릴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 문을 두드리라...” 하셨는데 이는 ‘하늘 문’ 곧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문을 어떻게 두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삼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면 부모는 무엇이든 주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 곧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중심에서 통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늘 응답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을 구한다는 의미다.
2. 죄를 범한 아담과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은 ()이 죽어 하나님의 ()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3. 하나님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 것을 말한다.
4.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라고 당부하신 것일까요?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란?

사람의 겉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본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이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2-818-7241)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온사동, 옥길동)
10교구장	안성현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1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이영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문의전화/ 02-818-7102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팔어가 종이책으로 발간되었고, 「나의 삶 나의 신앙2」 에스토니아어가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신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만민뉴스 영어(723호), 중국어(597호), 스페인어(294호), 포르투갈어(119호), 우르두어(96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2022 만민하계수련회」가 8월 1일(월) ~ 3일(수)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만민하계수련회 참석차 예수교연합성결회 아프리카 총회장 정명호 목사님과 윤인숙 사모님, 콩고 킨샤사 만민교회 세바스찬 임페토 장로님 부부 등 해외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입국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금주 수요일예배는 만민하계수련회 관계로 없습니다.
다니엘철야가 8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없으며 8월 1일(월) 환자랜선기도회도 없습니다.
- 수련회 관계로 주보 광고 접수를 오늘 오후 5시까지 마감합니다.
- 8월 추천도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우림북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넷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구향서 집사, 흥아라 자매(해외)(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시설관리국)

— << 교구별 현장예배 장소 >> —

일 정		신학교 예배실	사택 예배실
7월 31일	대예배	1~6 교구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저녁예배	7~10 교구	중국대교구
8월 7일	대예배	7~10 교구	1~6 교구
	저녁예배	중국대교구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8월 14일	대예배	중국대교구	7~10 교구
	저녁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1~6 교구
8월 21일	대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중국대교구
	저녁예배	1~6 교구	7~10 교구

— << 지성전 기도회 일정 >> —

인도: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

날 짜	교구 / 지성전	교구장	구분
8월 7일	21교구 부평지성전	이풍근 목사	3대대
8월 14일	15교구 북부지성전	문신현 목사	3대대
8월 21일	18교구 안산지성전	황미경 전도사	3대대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이영인 전도사 010-4820-170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7/31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00 - '믿음의 분량 27' 이재록 목사 05:00 - '욥기 강해 1' 이수진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00 - '십계명 4' 이재록 목사 18:30 - '영의 기운과 육의 기운' 박형렬 목사
8/1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00 - '금 그릇 1' 이수진 목사 07:05 - '십계명 5' 이재록 목사 08:00 - '창세기 강해 27' 이재록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00 - '요한일서 강해 34' 이수진 목사 15:30 - '육체의 결여 4' 이재록 목사 19:30 - '우리 삶의 등불 38' 이재록 목사
8/2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00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2' 이수진 목사 08:00 - '창세기 강해 28' 이재록 목사 10:20 - '성령의 9가지 열매 8' 이재록 목사 12:05 - '1차 영혼육 8' 이재록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00 - '요한일서 강해 1' 이재록 목사 15:30 - '육체의 결여 5' 이재록 목사 18:00 - '욥기 강해 2' 이수진 목사 19:00 - 구역 공과 63
8/3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00 - '요한일서 강해 3' 이재록 목사 01:00 - '만민의 역사'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05:00 - '요한계시록 강해 43'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12:05 - '2차 영혼육 1' 이재록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00 - '공간과 차원 7' 이재록 목사 15:30 - '육체의 결여 6' 이재록 목사 17:00 - '십계명 7' 이재록 목사 18:00 - '우리 삶의 등불 49' 이재록 목사
8/4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00 -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수진 목사 07:05 - '십계명 8' 이재록 목사 10:20 - '축복 1' 이재록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05 - '2차 영혼육 2' 이재록 목사 13:00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1' 이재록 목사 15:30 - '육체의 결여 7' 이재록 목사 19:20 - '절과 풀이 흐르는 땅 3' 이수진 목사
8/5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08:00 - '창세기 강해 31' 이재록 목사 10:20 - '축복 2' 이재록 목사 14:00 - '요한일서 강해 4' 이재록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00 - '십계명 9' 이재록 목사 19:00 - 천지창조의 섭리 14 20:40 - 필리핀 연합대성회 2
8/6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07:05 - '십계명 10' 이재록 목사 10:00 - '참된 가치' 이재록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05 - '2차 영혼육 4' 이재록 목사 19:40 - '우리 삶의 등불 99'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02-824-7107 / webmaster@gcntv.org)

✦ 유튜브 GCN방송 채널 및 KT olleh tv 882번(HD채널, 별도 편성)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위성 A/S 문의 : 1577-2073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번. 41번(영어), 42번(불어), 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번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KoreaSat5 위성방송, KT olleh tv 882번,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아예배_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tv.org

- Jul. 31(Sun.)

(Romans 8:27) “And He who searches the hearts knows what the mind of the Spirit is, because He intercedes for the saint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 Aug. 1(Mon.)

(John 1:14)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saw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 Aug. 2(Tue.)

(Galatians 4:19) “My children, with whom I am again in labor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 Aug. 3(Wed.)

(Matthew 7:8)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 Aug. 4(Thu.)

(1 Thessalonians 5:6) “So then let us not sleep as others do, but let us be alert and sober.”

- Aug. 5(Fri.)

(Psalm 20:7) “Some boast in chariots and some in horses, But we will boast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 Aug. 6(Sat.)

(James 2:13) “For judgment will be merciless to one who has shown no mercy;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금주의 성경구절

7월 31일(주일)
(롬 8:27)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8월 1일(월)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8월 2일(화)
(갈 4: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8월 3일(수)
(마 7:8)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8월 4일(목)
(살전 5: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8월 5일(금)
(시 20:7)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월 6일(토)
(약 2:13)

공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이재록 목사 간증 후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육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고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아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연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사행하리니/ 입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실천편 2

권 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잠들었나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픔이 나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나쁘게 보나리니/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제설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라/ ... 2_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_예배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_기도편

치료하는 영약도/ ... 5_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_심계명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_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_열매양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자혜의 샘/ 잠연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데스다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자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갈옷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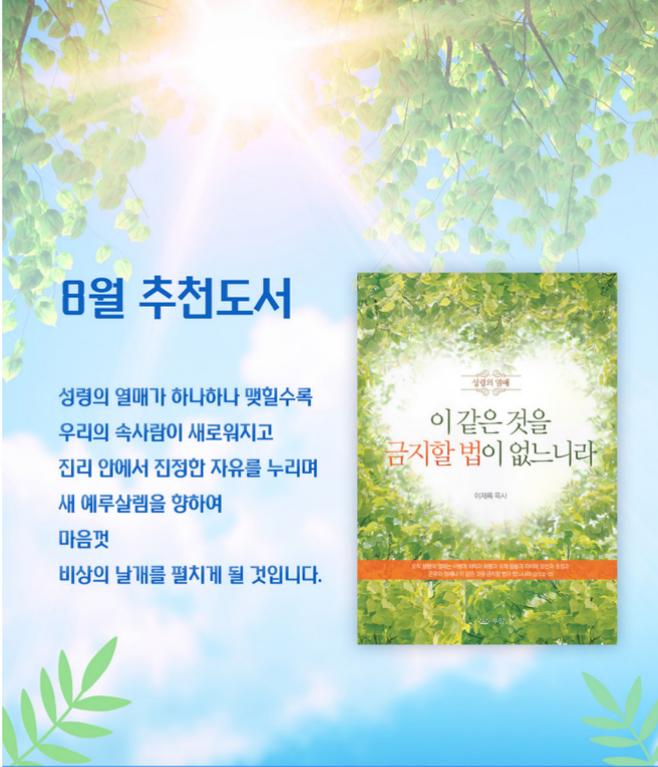
간추려진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8월 추천도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일수록

우리의 속사림이 새로워지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껏

비상의 날개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URIM BOOKS

#홈페이지 : www.urimbooks.com

#페이스북 : [facebook.com/urbooks17](https://www.facebook.com/urbooks17)

#블로그 : blog.naver.com/urbooks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여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회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다/ 십자가의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웅(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심계명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도 ①, ②

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젖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상!

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https://www.facebook.com/urbooks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각 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각 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각 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30	각 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각 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각 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40 저녁예배/ 오후 1:30	

※ 예배시간 및 관련 문의 : 만민중앙교회 기획실 ☎ 02-818-7236